

'오일머니' 위력... 빅리그로 뜨는 사우디 축구

호날두·벤제마 이어 네이마르 사우디 이적 유럽리그 선수 영입에 8750억 원 '막대한 투자'

오일 달러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가 세계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으며 세계적인 빅리그 대열에 이름을 올리는 모양새다.

프랑스리그1 파리생제르망(PSG)에서 활약하던 브라질의 간판선수 네이마르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 힐랄에 입단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웬만한 유럽 리그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이름값을 자랑하게 됐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유럽 빅리그에서 퇴물취급을 받던 선수들이 사우디리그를 노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2023~24 시즌 개막을 앞두고 유럽 빅리그에서 스타들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2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알 나스르에 입단했고, 지난해 발롱도르 수상자인 카림 벤제마(프랑스)는 6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벗고 알이티하드 유니폼으로 갈아 입었다.

AFP통신은 네이마르의 이적 소식이 전

해진 16일 최근 사우디 리그로 향한 주요 선수들을 등급별로 분류했다.

먼저 축구 팬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로 구성된 스타 등급에는 호날두와 벤제마, 네이마르 외에 은골로 캉테(프랑스), 파비뉴(브라질), 리아드 마레즈(알제리), 사디오 마네(세네갈)가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들은 전문학적인 이적료 외에 엄청난 연봉이 보장돼 있다.

또 다소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로는 마르첼로 브로조비치(크로아티아), 조던 헨더슨(잉글랜드), 호베르투 피르미누(브라질), 에두아르 멘디, 칼리두 쿨리발리(이탈리아) 등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들과 계약했다.

비교적 젊은 선수들은 '라이징 밸런스'로 분류했다. 세코 포파나(코트디부아르), 세르게이 밀린코비치(세르비아), 후벤 네베스(포르투갈), 알랑 생샤시앵(프랑스) 등 20대 선수들도 유럽 무대를 마다하고 사우디로 향했다.

감독들의 이름값도 만만치 않다. EPL 러버풀의 레전드로 꼽히는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알 에티하드 지휘봉을 잡았고, 웨



네이마르

호날두

벤제마

스트헨 사령탑을 역임한 슬라벤 빌리치 감독은 알 파테흐 감독이 됐다.

네이마르가 입단한 알 힐랄은 벤파카, 페네르바체 등을 이끌었던 조르즈 제수스가 감독이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

들이 2023~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선수 영입에 쓴 돈은 6억 유로(약 8750억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적료가 큰 순으로 보면 네이마르가 9000만 유로(약 1315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힐랄

로 옮긴 말콤(브라질)도 60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했다.

호날두와 벤제마는 이전 소속팀과 계약이 끝났거나 방출된 상황에서 사우디 팀들과 계약해 이적료가 별도로 없었다.

EPL 올버햄프턴에서 황희찬과 함께 뛰

었던 네베스도 이적료 5500만 유로에 알 힐랄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18개 클럽이 참여하는 사우디 리그 2023~24시즌은 11일 개막했으며 팀당 30 경기를 치르며, 2024년 5월 말까지 이어진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USA투데이=연합뉴스

탄력 받는 류현진... 부상 선수 줄줄이 복귀

마무리 로마노 선수단 합류 내야수 비셋은 주말 복귀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든든한 도우미들의 지원을 받는다. 부상으로부터 빠졌던 마무리 투수 조던 로마노(30)와 내야수 비셋(25)이 돌아온다.

조던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16일(한국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MLB닷컴 등 현지 매체에 "부상자 명단(LL)에 있던 로마노를 엔트리에 포함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비셋은 마이너리그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에서 재활 경기에 나선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19일쯤 빅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선수의 합류는 올 시즌 세 번째 선발 출격을 앞둔 류현진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로마노는 올 시즌 4승 5패 2홀드 28세이브 평균자책점 2.79로 맹활약한 주전 마무리 투수다. 로마노는 지난달 열린 MLB 올스타전에서 허리를 다쳤고, 올스타 브레이크 뒤 경기 출전을 강행하다 통증이 악화했다. 그는 8월 이후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다가 최근 회복에 전념해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비셋의 복귀 소식도 반갑다. 비셋은 부상 이탈 전까지 토론토의 공수를 이끌었다. 그는 올 시즌 106경기에서 타율 0.321, 17홈런, 59타점으로 활약하다 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무릎을 다쳐 전열에서 벗어났다.

비셋은 타격뿐만 아니라 정삼구 수비력도 갖춰 '땅볼 유도형 투수'인 류현진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14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5이닝 2실점(비자책)으로 부상 복귀 후 첫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그는 선발 로테이션상 21일 오전 2시 40분 열리는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지난 '세계랭킹 1위' 티미쿤 KLPGA 출격

24일부터 한화클래식... 김아람·지은희 등과 우승경쟁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인 아타야 티미쿤(태국·사진)이 2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한화클래식(총상금 17억 원)에 출전한다.

총상금 17억 원은 국내에서 남녀 프로골프 투어 통틀어 최고 액수다.

한화클래식 대회 조직위원회는 "티미쿤이 올해 대회 특별 초청 선수로 나온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세계랭킹 12위인 티미쿤은 지난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았으며 두 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다.

2021년에는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을 석권했

고, 2022년에는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던 톱 란커다.

티미쿤은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초청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승을 목표로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화큐셀 소속 선수들인 김아람, 지은희, 김인경, 신지은도 출전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뛰는 이민영도 나온다.

박병현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수 있음)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